

한우

한우 광고모델로 국악소녀 송소희양 발탁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가 새로운 한우광고 모델로 최근 국민 여동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국악신동 송소희양을 선정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소비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소비자와 농가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함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송소희양의 참신함과 국악이라는 이미지가 이 땅위에 자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한우의 이미지와 잘 맞아 한우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소희양이 전하는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한우이야기인 TV CF는 3월에 운에어 된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은 TV CF 이외에도 국악소녀 송소희양이 부르는 한우송을 새로이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한우의 우수성을 알기 쉽게 노래로 제작될 한우송은 향후 통

화연결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우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송소희양은 “국악으로 우리 전통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악인으로써 우리 한우를 알리는 모델로 발탁되어 더욱 기쁘다”며 “한우 모델로써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97년생 현재 18세로 고등학생인 송소희양은 5세에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여 남다른 소질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각종 대회 수상 및 기념 공연을 통해 국악계의 아이돌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에는 전통 국악의 모습을 담으면서 대중이 원하는 깊이 있고 세련된 국악 앨범을 발매할 예정에 있다.

라이브뉴스 도나희 기자 [2014. 02. 26]

한돈

한돈자조금, 유명 요리사 · 건강 전문가 등 15명 명예홍보대사 위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3월 2일, 삼삼데이를 맞아 성북구 삼청각에서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촉진을 위한 ‘2014 한돈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우리 돼지고기 ‘한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균형 있는 부위별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2014 한돈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학과 김정은 교수 등

의학, 요리·영양, 헬스·건강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명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명예홍보대사들은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한돈 사랑을 알리고 한돈의 균형 있는 부위별 소비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거대 농업국가와의 FTA 협상 진행, 경기하락에 따른 소비 둔화 및 부위별 수급 불균형 등으로 한돈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삼삼데이에 2014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한돈 농가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에게는 우리 국산 돼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03. 02]

양계

대한양계협회 제20대 회장 오세을 후보 당선



대한양계협회 제20대 회장에 오세을 후보가 당선됐다. 양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투표권이 있는 223명의 대의원 중 서면투표에 참가한 208명의 우편물을 접수·개표한 결과, 오세을 후보가 이연종 후보를 누르고 20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오세을 당선자는 경기도 포천에서 그의 아호를 딴 석봉농장(산란계)을 운영하고 있다. 45년간 양계업에 종사해 오면서 양계협회 포천 지부장, 경기도 산란지부 연합회장을 역임했고, 한국양계농

협 이사,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 감사, 양계협회 이사, 친환경축산추진본부 경기도 협의회 회장 등을 맡으며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협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명나는 양계산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회장 당선 소감을 밝힌 오세을 당선자는 양계협회 내 각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단체인 “계육협회와 계란유통협회, 토종닭협회 등과 연대해 국내 양계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 후세 양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대축산뉴스 [2014. 03. 20] / 사진 : 라이브뉴스

우유자조금

우유자조금, 의장과 관리위원장 등 무투표 당선



이경훈 의장



손정렬 관리위원장

우유자조금이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장, 감사, 관리위원 등을 투표없이 선출함으로써 선거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우유자조금 대의원회는 지난 3월 20일 대전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구창호 의장을 대신해 이승호 관리위원장이 주재하여 회의를 갖고 차기 의장과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감사 등을 투표 없이 모두 선출하였고 명칭도 낙농자조금에서 우유자조금으로 개명하였으며 2013년도 결

산에 대해 승인하였다.

이날 선거는 사전 후보 등록과정에서 의장에는 이경훈 후보가 단독 출마하였고 관리위원장에 손정렬 후보가 단독출마함으로써 모두 무투표 당선되었다. 또한, 감사와 관리위원에 대해서도 상호 의론하여 지역별로 안배하여 추대하였다. 이날 우유자조금대의원회 의장으로 무투표 당선된 이경훈 의장은 1970년 생으로 대전실업전문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했으며 홍성낙협 이사와 낙농육우협회 이사, 우유수급조절협의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정렬 관리위원장은 1962년 생으로 서울배재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동 대학원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우유자조금관리위원과 낙농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낙농육우협회장과 축단협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양봉

대전시, 도시양봉장 8곳으로 대폭 확대



경북 김천시는 3월 11일 친환경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양봉협회 오만균 부회장 강의로 ‘양봉 사양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 115명의 양봉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봉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는 계절별 꿀벌관리 요령, 병해충 방제, 친환경 벌꿀생산, 화분 채취 방법, 로열젤리 생산 기술 등 친환경 양봉기술에 중점을 뒀다”며 “환절기 양봉관리 및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의 기술 향상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 벌꿀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교육을 하고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시는 3월 11일 친환경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양봉협회 오만균 부회장 강의로 ‘양봉 사양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 10시 115명의 양봉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봉협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는 계절별 꿀벌관리 요령, 병해충 방제, 친환경 벌꿀생산, 화분 채취 방법, 로열젤리 생산 기술 등 친환경 양봉기술에 중점을 뒀다”며 “환절기 양봉관리 및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의 기술 향상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 벌꿀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중심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교육을 하고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강소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 기자 [2014. 03. 12]

